

제주 전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도, 차고지증명제 연착륙 위해 주차장 유료화... 관련 사업비 확보 난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 시설 예산 확보와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주도에 공영주차장은 총 1136곳이며, 주차면수는 3만9059면이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곳(5203면)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곳(3만3856면)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차고지증명

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셈이다.

제주도는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 위해 행정시 등 관계기관들과 행정예고 대상지와 주차 규모, 운영관리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임대 안정화를 위해 유료화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료주차장 내 40%의 주차면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차면 도색 정비와 표지판 설치 등의 부가적 예산도 확보

해야 한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비용이 약 55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비용 절감 대책으로 민간기업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민간투자 방식인 BTO 사업을 도입한 무인 스마트주차관제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30면 이하인 소규모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주차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면에 부착해 주차한 차를 고정하는 '파킹락' 방식과 유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중산간 마을 지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제주도는 1km 이내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도로옆 공터와 자투리 공유지, 사유지 공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1km 이내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주변지역에 전혀 없는 경우, 지정 범위를 1km 이상 늘리는 방안이나 인접 노상주차장 구획을 정리해 임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i@ihalla.com

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 56개로 확대

공교육 혁신모델인 '다혼(아래아)디 배움학교'가 2022년까지 제주 전체 학교 30%인 56개 학교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38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혼디배움학교를 2022년까

지 56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을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가 자리매김하면서 교사 중심의 학교 문화를 학생 중심

으로 바뀌 혁신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다혼디배움학교 등 혁신학교 성과를 일반학교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달리 국어·수학·영어의 인지적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5

곳, 2020년 8곳, 2021년 5곳을 추가 모집해 2022년까지 모두 56개의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혼디배움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113교 중 24교(21.2%), 중학교 45교 중 12교(26.7%), 고등학교 30교 중 2교(6.7%)를 포함해 전체 188개교(3개 특수학교 제외) 중 20.2%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성준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2일 금요일 음 6월 10일 (2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호리고 비	22/25°C
모레	구름 많음	22/27°C

구름 많음

제주도는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높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2°C, 낮 최고기온은 25-27°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해돋이 05:33	달돋이 15:32
해짐 19:46	달짐 01:48
물때 만조 06:58	간조 01:18
20:33	13:39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도내 주택임주경기 '냉랭' 7월 지수 전망 전국 꼴찌

제주지역 주택시장 임주경기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7월 제주지역 임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57.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선을 기록했다. 전달 57.1에 비해서는 0.7포인트로 올랐

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전국의 전망치는 77.7로 전달 대비 6.6포인트 상승했다.

임주경기실사지수는 입주율을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소진기자 hasm@ihalla.com



파란하늘 보인 날... 오징어 말리는 여촌.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 맑은 날씨를 보인 11일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지구내포구에서 어민들이 오징어 말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택시요금 내주부터 오른다

기본운임 소형 100원·중형 500원·대형 700원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택시운임과 요율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6월 26일 공고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7월 1일 택시요금 인상(2200원에서 → 2800원) 후 6년만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km)은 2200원 →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km)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 126m·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km) 3800원 →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 시계의 할증 형태의 장거리(20km)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계의 할증은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조성윤기자

멸종위기식물 피뿌리풀 '위기' 산림청 "자생지 1곳만 남아"

약 750년의 자생 역사를 가진 '멸종위기식물' 피뿌리풀(사진) 자생지가 제주섬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복원연구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오름에 자라는 피뿌리풀의 자생지가 오름 1곳에 2개체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맡아 최근 2년간 제주도 동부지역 오름 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2개체는 약 500m의



거리를 두고 자라고 있었으며, 이들 개체에서 약 20여개의 꽃송이가 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최근 피뿌리풀 자생지 개체수가 급감해 산림청 극심멸종위기식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등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소진기자

JEJU MECENAT ASSOCIATION

2019 메세나예술영재캠프

참여 예술영재 모집

메세나예술영재캠프는 미래 문화예술을 선도할 우수한 재능을 가진 도내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잠재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1:1 멘토링 및 전공 심화 수업 등 전문적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메세나예술영재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메세나예술영재캠프

기간	2019. 08. 06.(화) ~ 08.10.(토)(5일간)
시간	9시 ~ 12시 (3시간)
대상	도내 초등학교 4 ~ 6학년 中 음악/미술 전공 희망자
장소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관 및 미술관
수업료	전액무료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분야	세부전공	선발인원
음악	건반	10인 내외
	현악	
	관악	
미술	통합모집	10인 내외
	한국화	
	서양화	

* 교육과정 및 영재 선발 심의기준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

신청기간 2019. 07. 08.(월) ~ 2019. 07. 19.(금) 18:00
* 신청기간 업무,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신청자격 도내 초등학교 4 ~ 6학년 中 음악/미술 전공 희망자

모집분야별 제출서류

모집분야	제출서류
음악	지원신청서
미술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작품) 3점 이상

신청방법

제주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jjmecenat@naver.com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064-724-6689

(사)제주메세나협회
Jeju Mecenat Association